

# KMI 동향분석

VOL.208  
2025 JUNE

발간년월 2025년 6월(통권 제208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조정희  
감 수 윤성순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홈페이지 www.kmi.re.kr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집필진의 견해입니다.

## 2024년 관광시장 전반 위축, 해양관광 소비 4.95% 감소해 38.9조원 기록

최일선 해양관광·문화연구실장  
(ilsunchoi@kmi.re.kr/051-797-4727)  
이슬기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sglee84@kmi.re.kr/051-797-4768)  
김예림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yelimkim@kmi.re.kr/051-797-4797)  
황태건 해양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htk@kmi.re.kr/051-797-4784)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전체 관광소비액은 전년 대비 5.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기간 전국 11개 연안지역 모두에서 해양관광 소비 역시 감소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후 이어졌던 회복 흐름이 멈추고 해양관광시장은 침체기에 직면하였다. 전체 연안지역 상권 규모는 63조 4,6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3% 감소하였으며, 해양관광시장 소비 규모는 38조 9,20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5% 감소하였다. 이는 연안지역 전체 소비시장보다 약 2배 가까이 큰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해양관광 부문이 보다 직접적인 충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안지역별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는 부산연안(6조 3,796억 원), 전남연안(5조 1,945억 원), 경남연안(5조 1,633억 원) 순으로 2023년에 이어 상위 3개 지역을 유지하였으며, 전체 상권 대비 해양관광 소비 비중은 강원연안(74.9%), 제주연안(70.5%), 경북연안(69.4%) 순으로 높아, 이들 지역이 해양관광산업에 대한 구조적 의존도가 높음을 보여준다. 2024년 해양관광 소비는 전국 모든 연안지역에서 감소하였으며, 제주연안(-9.4%), 인천연안(-6.4%), 전남연안(-6.4%) 등은 특히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하였다. 반면 강원연안은 -1.2%로 가장 완만한 감소세를 보였다.

연안지역 소비의 내·외지인 분석 결과, 외지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강원연안(68.5%), 충남연안(67.1%), 제주연안(58.9%), 부산연안(58.7%), 인천연안(58.1%) 등으로, 이들 지역은 외부 관광객 유입에 따른 관광소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내지인 중심 소비가 강한 지역은 경남연안(64.0%), 전남연안(50.9%), 경기연안(51.5%) 등으로, 이들 지역은 정주형 생활관광 수요가 뒷받침되는 구조로 판단된다. 이는 향후 지역 특성에 따른 차별적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4년 해양관광시장 소비는 전 계절에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여름(-6.1%)과 가을(-6.2%) 소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반면, 봄(-3.9%)과 겨울(-3.3%)은 상대적으로 소비 감소 폭이 작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수기 중심의 소비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자, 봄-겨울 등 비성수기의 전략적 잠재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4년 해양관광시장의 가장 뚜렷한 변화 중 하나는 업종별 소비 감소의 양상이다. 음식과 소매/유통 업종이 여전히 높은 소비 비중을 유지하고 있으나, 숙박(-8.5%)과 숙박 외 여가오락(-9.6%) 업종은 전년 대비 가장 큰 하락 폭을 기록하며 체류형 관광의 약화가 두드러졌다. 이는 고비용 부담, 콘텐츠 부족 등 복합 요인으로 인해 숙박 및 체험 중심의 관광이 줄어들고, 대신 단기 방문형 소비가 확산되는 구조적 전환의 신호로 해석된다. 향후 해양관광정책은 업종 간 연계를 통해 체류시간과 소비의 동시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세대별 소비에서는 40대와 50대가 여전히 주력 소비층으로 나타났으나, 2024년에는 60대 이상 시니어층의 해양관광 소비 비중이 상승하며 새로운 핵심 소비계층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70대 이상은 일부 지역에서 소비 비중이 증가한 반면, 20대의 소비 비중은 다수 지역에서 하락하였다. 또한 2030세대의 연안지역 방문 비중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는 줄어드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20~2024년까지의 5개년 신용카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해양관광시장 소비 규모와 소비 트렌드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해양관광정책 수립 시 갑작스러운 외부 요인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세대별 맞춤형 정책을 강화하며, 업종별 소비 방식의 변화에 맞춰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는 등 보다 정교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빅데이터 기반 해양관광시장 분석 개요

## ■ 나이스지니데이터(주)가 제공한 상권매출 및 소비행태 분석 실시

### - 분석기간 및 분석대상

- 분석기간: 지역 해양관광 빅데이터 분석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5년(60개월)을 분석범위로 설정함  
\* 2020년-2023년까지의 데이터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기존 동향분석(2024.7)자료 활용
- 분석대상: 2024년 기준 전국 해양·연안지역 행정동 491개

### - 분석방법 및 활용데이터

- 분석방법: 신용카드 소비 데이터 기반 상권 분석은 4개 카드사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별·업종별 카드사용 비중과 현금 이용률을 보정한 추정 모델을 적용하여 전체 상권 규모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수행

〈그림 1〉 지역 해양관광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방법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 · 활용데이터

- ① 지역 상권 매출 업종: 지역경제에 미치는 총체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소매·유통, 음식, 여가오락(숙박 포함), 생활서비스, 교육·의료서비스 등 전 업종을 포함한 포괄적 상권 데이터를 분석함
- ② 해양관광 관련 업종: 해양관광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성이 높은 업종군을 선정하여 숙박, 숙박 외 여가오락, 음식, 소매·유통 중심으로 상권의 관광 유발 효과를 분석함(단, 분석 대상 지역 내 해당 업종의 점포 표본 수가 3개 미만일 경우는 통계 신뢰도 기준에 따라 분석에서 제외함)

〈표 1〉 지역 해양관광 영향효과 분석 업종

대분류	중분류
소매·유통	음/식료품소매, 의복/의류, 패션잡화, 스포츠/레저용품, 종합소매점 등
숙박 외 여가오락	취미/오락, 요가/마사지 등
음식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수산물요리, 고기요리, 커피/음료, 주점 등
숙박	일반호텔, 기타숙박, 리조트, 모텔/여관, 펜션 등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작작성

##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 분석

### ■ 연안지역 소비시장, 성장세 멈추고 정체 국면 진입

- 2024년 우리나라 연안지역 상권규모는 63조 4,629억 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2.6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최근 3년간(2021~2023) 이어져 온 가파른 성장세가 처음으로 꺾인 결과로 연안지역 소비시장 전반이 정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함
- 앞선 2023년에는 65조 1,766억 원의 소비규모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전 대비 높은 회복 수준을 달성했으나, 2024년 들어 상승 탄력이 둔화되면서 추가 성장의 한계가 확인됨
- 이러한 소비 정체의 배경에는 국내 소비심리의 피로 누적, 전반적인 경기 둔화, 해외여행 수요 회복에 따른 내국인 분산 효과 등 다중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됨
- 실제로 컨슈머인사이트의 「2024-2025 국내·해외 여행소비자 행태의 변화와 전망」 리포트에서도 이와 유사한 흐름이 나타남. 자료에 따르면 국내여행은 2020~2021년 침체기를 거친 후 2022년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3년부터 다시 하향세를 보인다고 언급함<sup>1)</sup>

〈그림 2〉 연도별 연안지역 상권규모 변화 추이

단위: 원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작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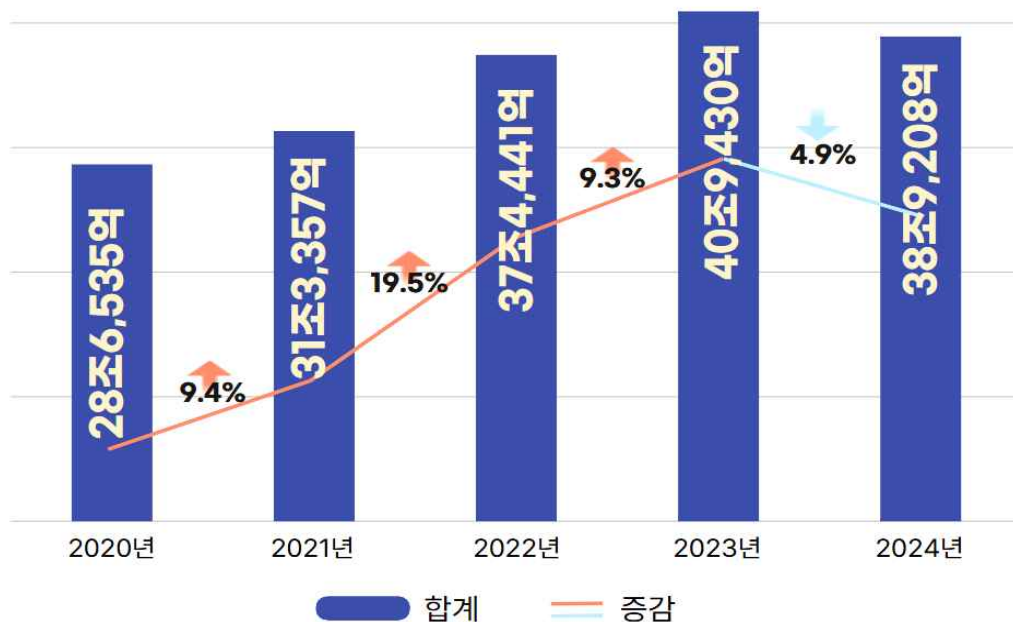
1) 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2024. 12. 26.), 「2024-2025 국내·해외 여행소비자 행태의 변화와 전망」.(검색일: 2025. 6. 24.)

## ■ 2024년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 4.95% 감소, 성장세 둔화로 전환

- 2024년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는 38조 9,208억 원으로 전년(40조 9,430억 원) 대비 4.95% 감소하였음. 이는 같은 기간 연안지역 전체 상권(-2.63%)보다 약 2배 가까운 하락폭으로 해양관광시장에 보다 직접적인 소비 위축이 발생했음을 시사함<sup>2)</sup>
- 2018~2023년까지 해양관광 소비는 대체로 안정적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특히 2020년 팬데믹으로 소폭 하락(-4.3%)한 이후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10% 이상 증가하며 역대 최고 소비규모를 지속적으로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음
- 그러나 2024년 들어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해외여행 수요의 본격 재개, 레저소비의 다변화, 가격 민감도 증가 등의 영향으로 해양관광 소비는 가시적인 수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임<sup>3)</sup>

〈그림 3〉 연도별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 변화 추이

단위: 원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작작성

2)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관광소비 추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2024년 관광소비액은 전년 대비 5.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 야놀자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인의 해외여행객 수는 28,686,435명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19년의 99.9% 수준에 도달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함. 이는 2023년 대비 26.3% 증가한 수치로, 해외여행 수요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음을 보여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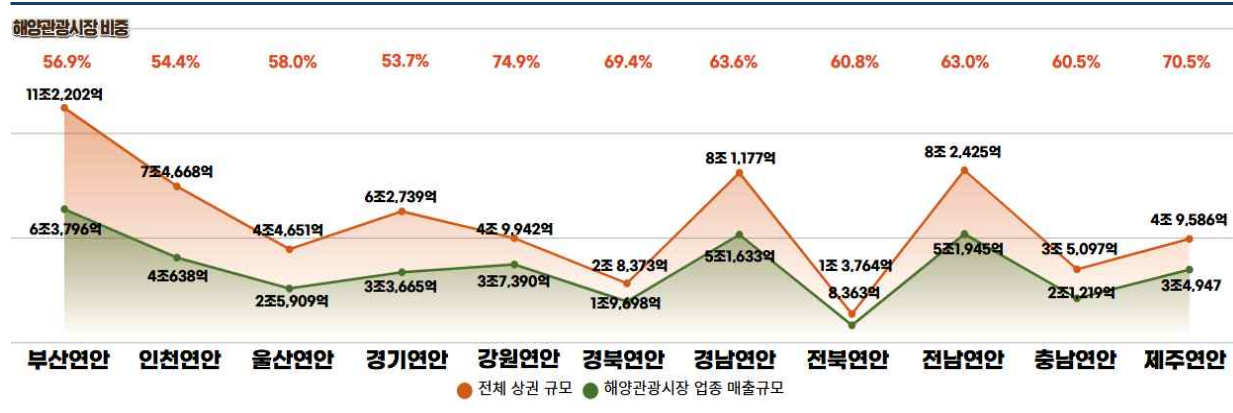


## ■ 2024년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 1위는 부산연안, 전체 상권규모 중 해양관광 비중은 강원연안이 최고

- 연안지역별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는 1위 부산연안 6조 3,796억 원, 2위 전남연안 5조 1,945억 원, 3위 경남연안 5조 1,633억 원 순으로 2023년과 동일한 순위를 보임. 이들 세 지역은 평균 해양관광 소비규모(3조 5,382억 원)를 크게 상회하며, 전통적인 해양관광 중심지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음
- 전체 상권 규모 대비 해양관광 소비 비중은 강원연안(74.9%), 제주연안(70.5%), 경북연안(69.4%) 순으로 높게 나타남. 이들 지역은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비해 절대적인 소비 규모는 작지만, 지역 내 경제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구조적 비중이 높아, 해양관광 산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평가됨

〈그림 4〉 연안지역별 전체 상권규모와 해양관광시장 비중

단위: 원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작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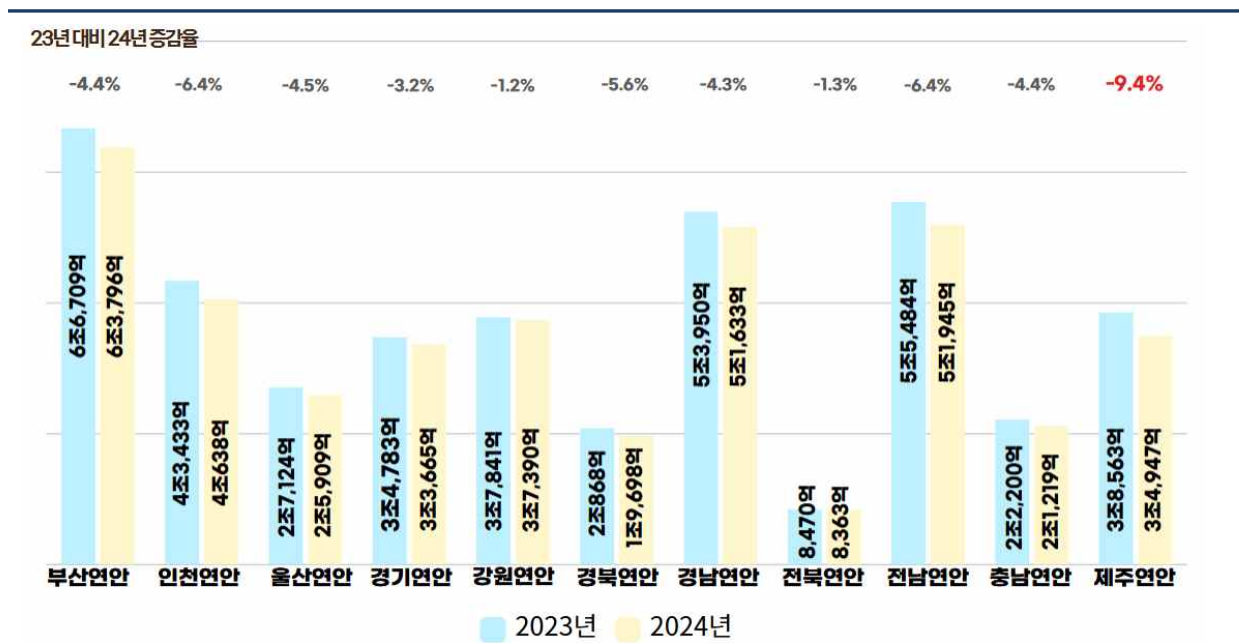
## ■ 2024년 해양관광 소비 전 연안지역 감소, 특히 제주연안(-9.4%)과 인천연안(-6.4%) 큰 폭으로 감소

- 2024년 전국 11개 연안지역 모두에서 해양관광시장 소비 규모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해양관광시장 소비 동향을 집계한 이래(2018년) 전국 모든 연안지역이 동시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처음임
- 이는 2023년 제주(-2.4%)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소비 증가율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임. 이러한 변화는 2020~2022년까지의 점진적인 회복세가 2023년에 정점을 기록한 후, 2024년에 들어 소비감소로 전환되면서 해양관광시장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함
- 2024년 해양관광 소비 감소율이 가장 컸던 지역은 제주연안으로, 전년 대비 -9.4% 감소함. 이러한 감소는 외지인 유입에 대한 높은 의존 구조 속에서 해외여행 수요 증가, 국내선 항공 좌석 공급량 감소, 고물가바가지 논란 등의 부정적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sup>4)5)</sup>

- 그 뒤를 이어 인천연안(-6.4%), 전남연안(-6.4%), 경북연안(-5.6%) 순으로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남. 이들 지역은 전통적인 체류형 해양관광 중심지로, 내수 경기 둔화와 함께 체류·소비 여력 축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판단됨
- 상대적으로 감소 폭이 낮은 지역은 강원연안(-1.2%)으로 수도권 근접성과 단가·반복 방문객 유입 구조 등이 외부 충격에 대한 완충 작용을 했을 것으로 예상됨

〈그림 5〉 연안지역 X 연도별 해양관광시장 규모 변화

단위: 원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 ■ 연안지역 해양관광 소비, 내지인과 외지인 기반 지역별 특성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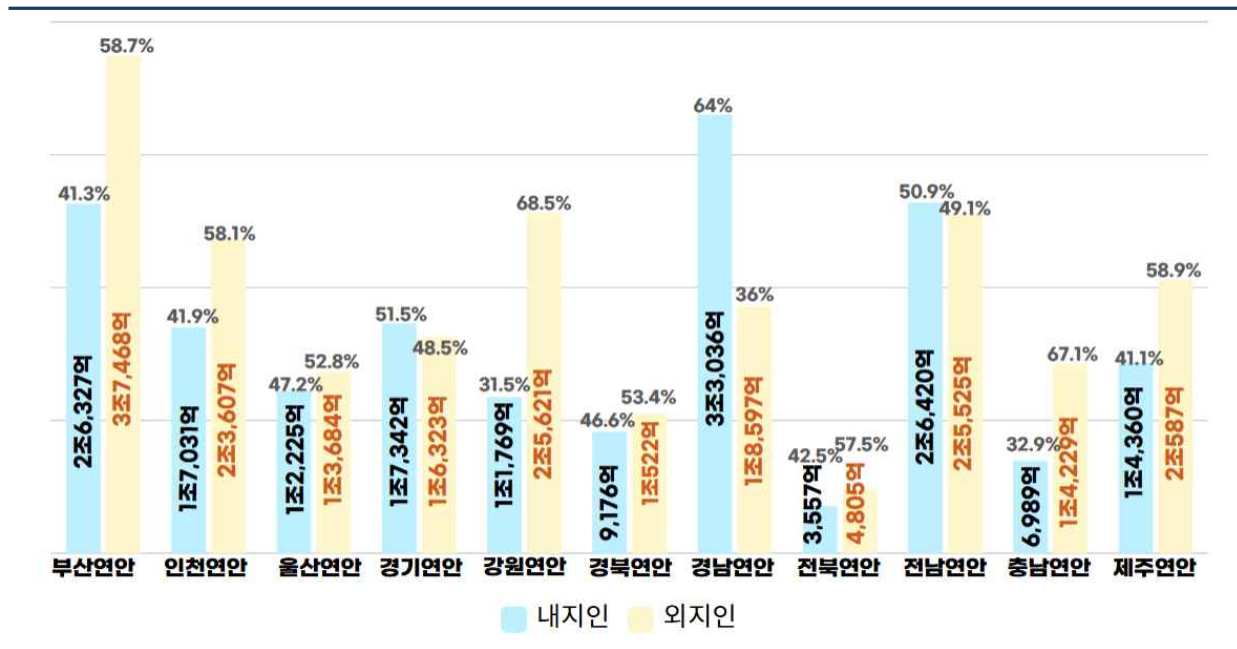
- 2024년 전체 소비 중 외지인 비중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강원연안(68.5%), 충남연안(67.1%), 제주연안(58.9%), 부산연안(58.7%), 인천연안(58.1%) 등은 외지인 소비 비중이 절반을 넘어, 관광객 유입 여부가 소비 규모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나타남
- 반면 경남연안(내지인 64.0%), 전남연안(내지인 50.9%), 경기연안(내지인 51.5%) 등은 내지인 중심 소비가 우세하거나 균형을 이루는 지역으로, 정주형 해양활동, 생활기반 해양레저, 지역민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의 일상적 해양활동이 경제기여의 주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4) 제주일보(2025.01.02). '2024년 제주 찾은 관광객 1378만명 넘어서' <https://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15687> (검색일: 2025. 6. 24.)

5) 2024년 제주 방문 내국인 관광객 수는 전체의 86%인 1,187만 6,303명으로 2023년 대비 6.4% 감소함. 여행신문(2025. 1.14). '제주도 3년 연속 1,300만명대...내국인 관광객 주춤' <https://www.trave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597> (검색일: 2025. 6. 24.)

〈그림 6〉 연안지역별 내지인 외지인 소비 비중

단위: 원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작작성

## ■ 사계절 모두 전년 대비 소비 감소, 특히 가을과 여름 감소 폭 두드러져

- 2024년은 해양관광시장 소비가 사계절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한 해로, 특히 여름(-6.1%)과 가을(-6.2%)의 감소 폭이 가장 컸음. 이 두 계절은 예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소비가 집중되던 시기였다는 점에서 성수기 소비 위축이 두드러진 결과로 해석됨
- 봄철(-3.9%)과 겨울철(-3.3%)은 여름가을 대비 소비 감소 폭이 작았는데, 이는 봄철 지역 축제나 겨울철 계절 특화 관광(예: 해맞이 행사, 온천 관광 등)으로 인해 일정 수준의 수요가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 2024년 해양관광시장 소비는 모든 계절에서 감소했지만, 소비 구조 자체는 성수기 편중에서 점차 벗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였음. 특히 봄과 겨울철의 소비 수준이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계절 간 소비 격차가 줄어드는 '사계절 관광 구조'로의 전환이 더욱 뚜렷해짐
- 이에 따라 향후 해양관광 정책은 기존 성수기 중심의 집중형 전략에서 벗어나, 비수기 계절의 수요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콘텐츠와 인프라 중심의 분산형 전략으로 전환할 것이 요구됨



〈그림 7〉 계절별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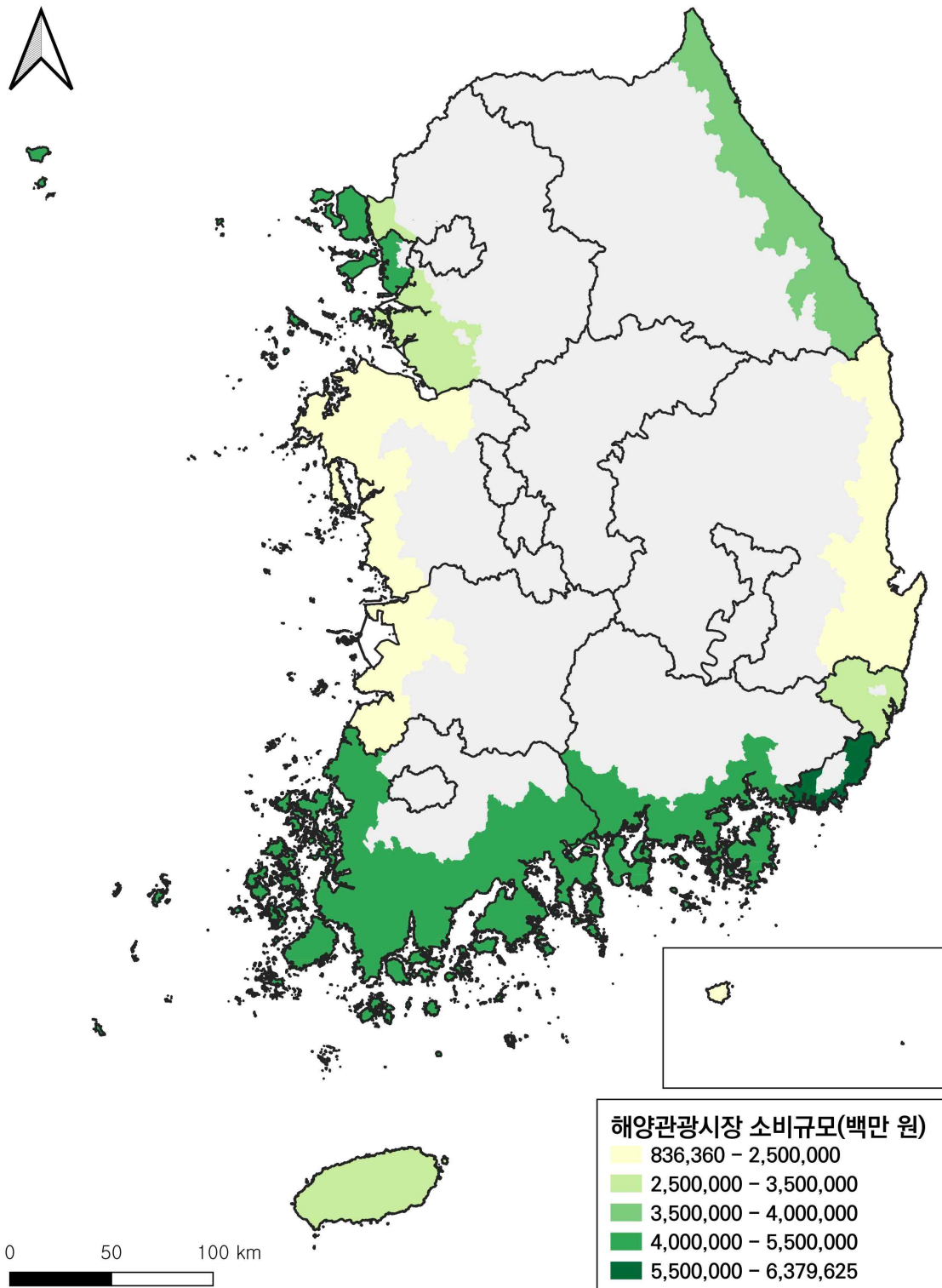
단위: 원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그림 8〉 2024년 연안지역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 현황

(단위: 백만 원)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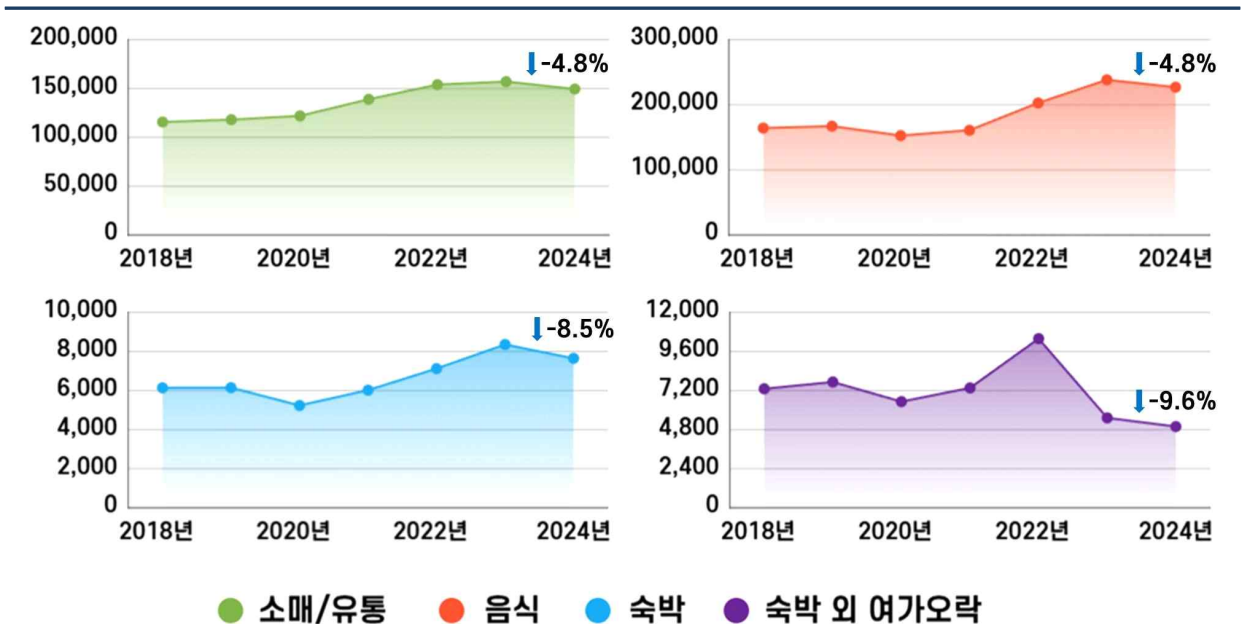
## 해양관광시장 업종별 소비트렌드 분석

### ■ 2024년 해양관광시장 침체 속, 숙박 및 여가오락 업종 소비 감소 폭 가장 커

- 연안지역 해양관광 업종인 소매/유통, 숙박, 숙박 외 오락, 음식 업종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음식 업종 소비 비중(58.3%)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매/유통(38.4%), 숙박(2.0%), 숙박 외 여가오락(1.3%)의 순으로 2023년의 비중과 큰 차이는 없음
- 음식 업종의 소비는 2024년 기준 약 22조 7,062억 원으로 2023년에 비해 약 1조 1,368억 원(-4.8%)이 감소하였으며, 소매/유통 업종 역시 전년 대비 -4.8% 감소한 14조 9,501억 원을 기록하는 등 모든 업종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나타남
- 특히, 숙박 및 숙박 외 여가오락 업종의 연안지역 소비규모는 각각 약 7,650억 원, 약 4,990억 원으로, 2023년 대비 각각 -8.5%, -9.6% 감소하여 연안지역에서의 체류형 관광이 줄어든 것으로 추정됨

〈그림 9〉 업종별 해양관광 소비트렌드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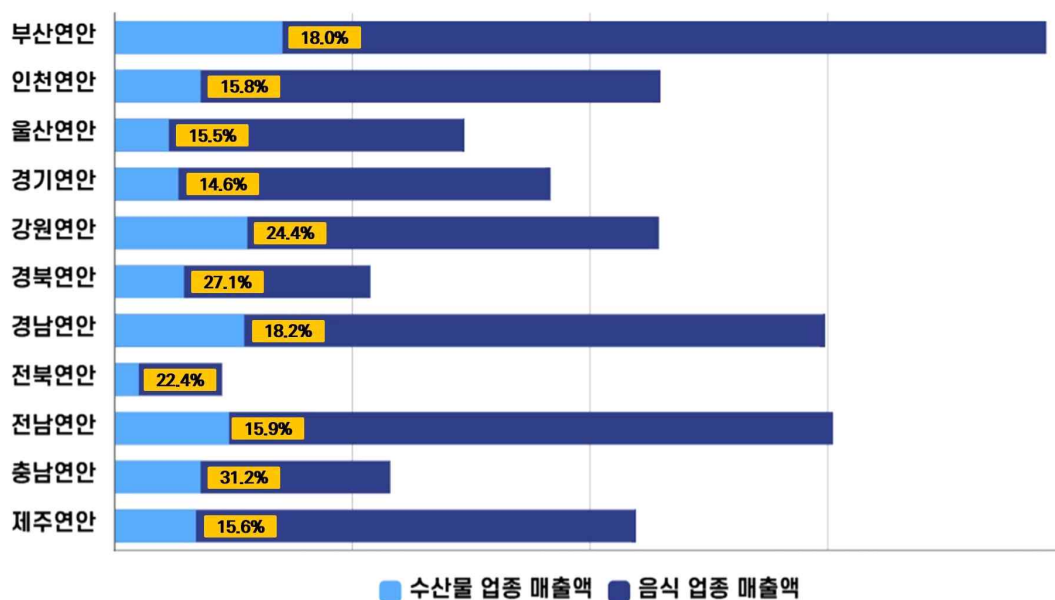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작작성

## ■ 수산물 관련 업종 매출액은 부산이 가장 높은 반면, 전체 음식 업종 대비 수산물 업종의 비중으로는 충남이 31.2%로 가장 높은 편

- 연안지역의 수산물 업종 매출액은 4조 2,468억 원으로 전체 음식 업종의 18.7%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에 비해 약 3,137억 원(-6.88%) 감소하였음
- 수산물 업종의 매출액이 높은 지역은 부산(7,062억 원), 강원(5,584억 원), 경남(5,451억 원) 순으로 나타났고, 이를 음식 업종 대비 수산물 소비의 비중으로 보면 충남(31.2%), 경북(27.1%), 강원(24.4%) 순으로 나타남
- 충남연안과 경북연안의 경우 음식업종의 매출액은 각 1조 1,601억 원, 1조 763억 원으로 다른 연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산물 관련 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각 31.2%, 27.1%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아 수산물 관련 업종의 지역 집중도가 높음
- 반면에 제주연안, 인천연안, 경기연안은 음식 업종의 매출액은 각 2조 1,936억 원, 2조 2,966억 원, 1조 8,342억 원으로 다른 연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수산물 관련 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각 15.6%, 15.8%, 14.6%에 불과하여 수산 업종의 의존도가 낮음
- 다만, 본 분석은 수산물 전문 업종에 한정되어 있어, 한식 등 일반 외식업종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산물 소비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지역 내 수산물 관련 소비 규모는 표시된 수치보다 더 클 수 있음

〈그림 10〉 연안지역 X 음식 업종 중 수산물 업종 매출 비중(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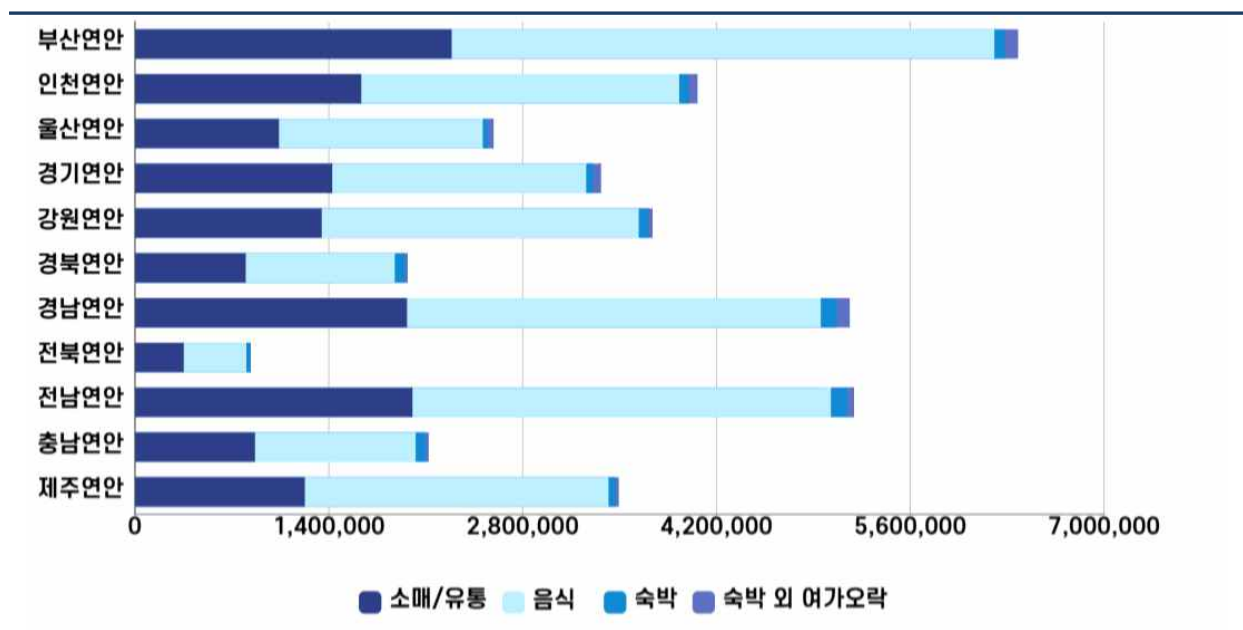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작작성

## ■ 2024년 기준 연안지역별 해양관광 업종 소비규모는 상이하나, 남해안 지역의 소비 규모가 가장 크고, 소매/유통 및 음식 업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 남해안에 해당하는 부산연안(6조 3,796억 원), 전남연안(5조 1,945억 원), 경남연안(5조 1,633억 원)에서 업종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연안지역의 업종별 매출액과 비중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부산연안, 강원연안, 제주연안의 경우 전체 업종 소비규모 대비 음식 업종의 비중이 60%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냄
- 반면, 숙박 업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부권의 경북연안(3.8%), 충남연안(3.4%), 전북연안(3.3%)은 해양관광 소비 규모가 적은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북연안은 2023년 대비 숙박 업종 소비가 소폭 증가(2.7%)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11〉 연안지역 X 업종별 해양관광시장 소비트렌드(2024년 기준)

(단위: 백만 원)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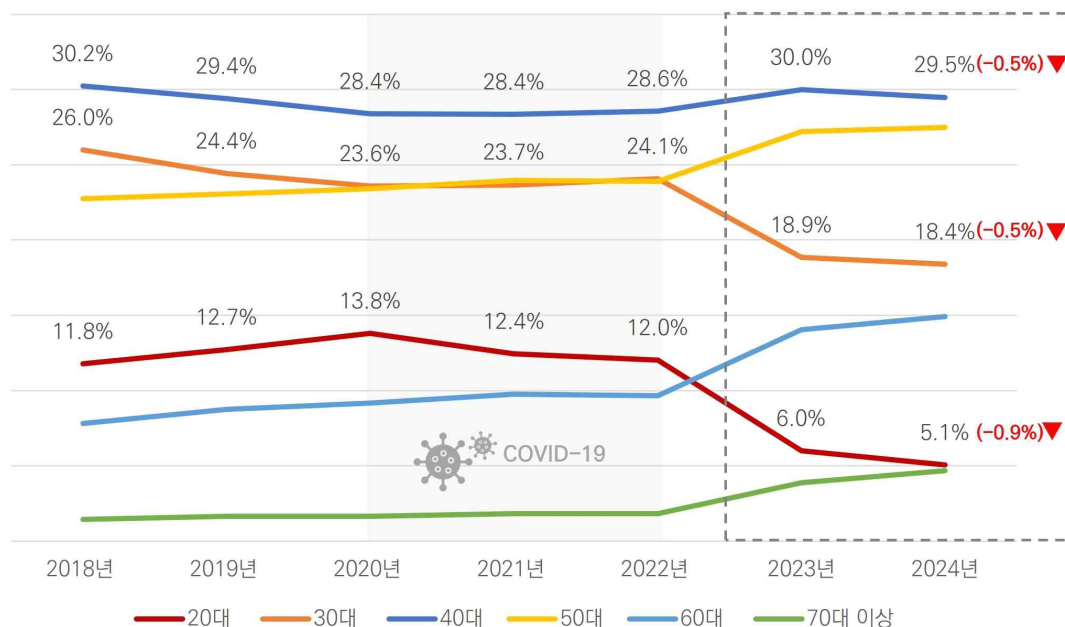


## 해양관광시장 연령별 소비트렌드 분석

### ■ 2030세대, 연안 방문 늘고 소비는 줄어, 특히 40대는 방문·소비 모두 감소

- 2024년 해양관광시장에서 20대~30대는 전년도에 비해 연안지역 방문 비중은 증가했지만, 해양관광 소비 비중은 감소(20대 6.0%→5.1%, -0.9%▼, 30대 18.9%→18.4%, -0.5%▼)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에 이어 2024년의 우리나라 해양관광시장은 40대~50대의 소비 비중이 높고(40대 29.5%, 50대 27.5%), 연안지역 유입인구도 40대~60대의 비중이 높은 편임(50대 21.0%, 60대 20.0%, 40대 18.7% 순)
- 지난해와 비교해 2024년에는 50대~60대의 연안지역 방문 비중과 해양관광 소비 비중이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다만, 우리나라 해양관광시장의 주요 연령층 중 하나인 40대는 전년도와 비교해 연안지역 방문 비중이 감소했고(-0.6%▼), 소비 비중도 줄어들면서(-0.5%▼) 핵심 소비층 역할이 약화 됨
- 70대 이상은 2023년보다 2024년에 연안지역에 덜 방문했지만(-2.5%▼), 해양관광소비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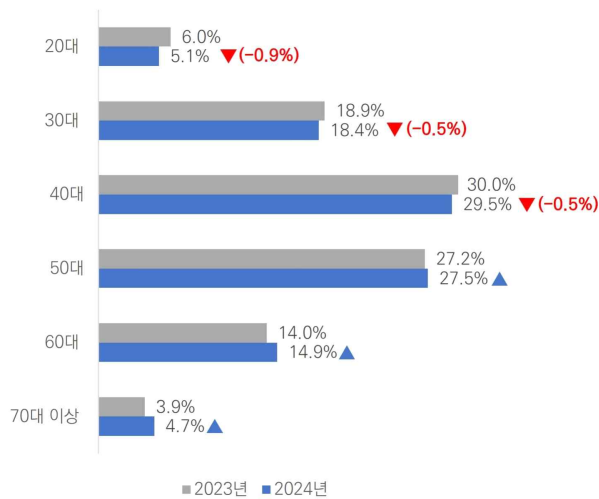
〈그림 12〉 해양관광시장 연령별 소비트렌드(2018-2024년)



주: 점선의 세부 내용은 아래 <그림 13> 2023년 vs. 2024년 연령별 해양관광소비 비중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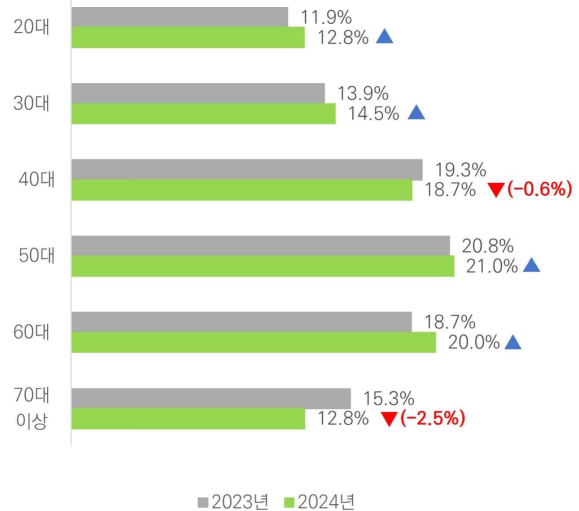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그림 13〉 2023년 vs. 2024년  
연령별 해양관광소비 비중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그림 14〉 2023년 vs. 2024년  
연령별 연안지역 유입인구 비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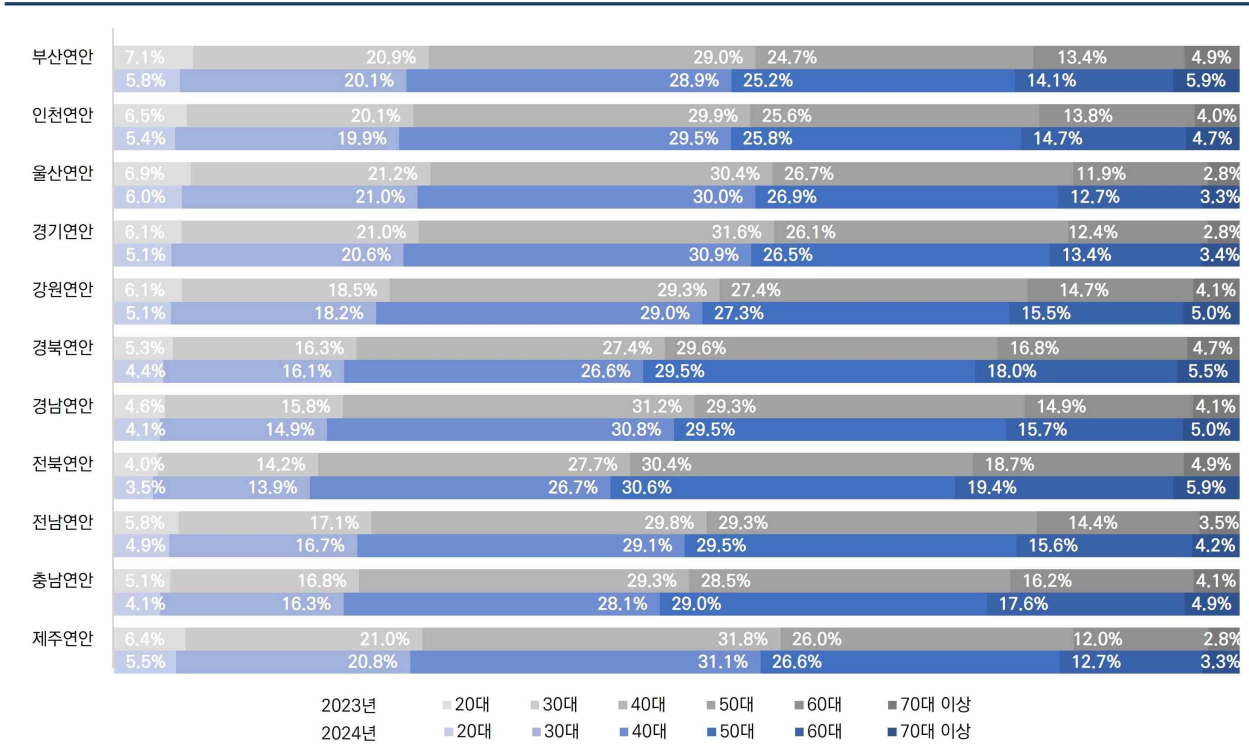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 ■ 2024년 해양관광소비, 20~40대 비중은 감소하고 시니어층(60대 이상) 소비는 증가 추세

- 2023년에 비해 2024년의 20대, 30대, 40대의 해양관광소비 비중은 전국 대부분의 연안지역에서 일제히 감소
- 20~40대 중에서도 특히 20대의 해양관광소비 비중이 줄어든 것이 눈에 띄었고, 그중 부산연안에서의 20대 해양관광소비 비중이 가장 많이 줄어듦(7.1%→5.8%, -1.3%▼)
- 2024년에는 전반적으로 60대 시니어층의 해양관광 소비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충남연안에서의 증가 폭이 가장 컸고(1.4%▲), 경북연안(1.2%▲), 전남연안(1.2%▲), 경기연안(1.0%▲) 등에서도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남
- 또한 대부분의 연안지역에서 70대 이상이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부산연안에서의 70대 소비 비중이 4.9%에서 5.9%로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상승세(▲1.0%p)를 기록함
- 2023년 결과와 유사하게 2024년에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경남, 제주 등 대부분의 연안지역에서는 여전히 40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나타났고, 50대가 그 뒤를 이음

〈그림 15〉 2023년 vs. 2024년 연안지역 X 연령별 해양관광시장 규모 트렌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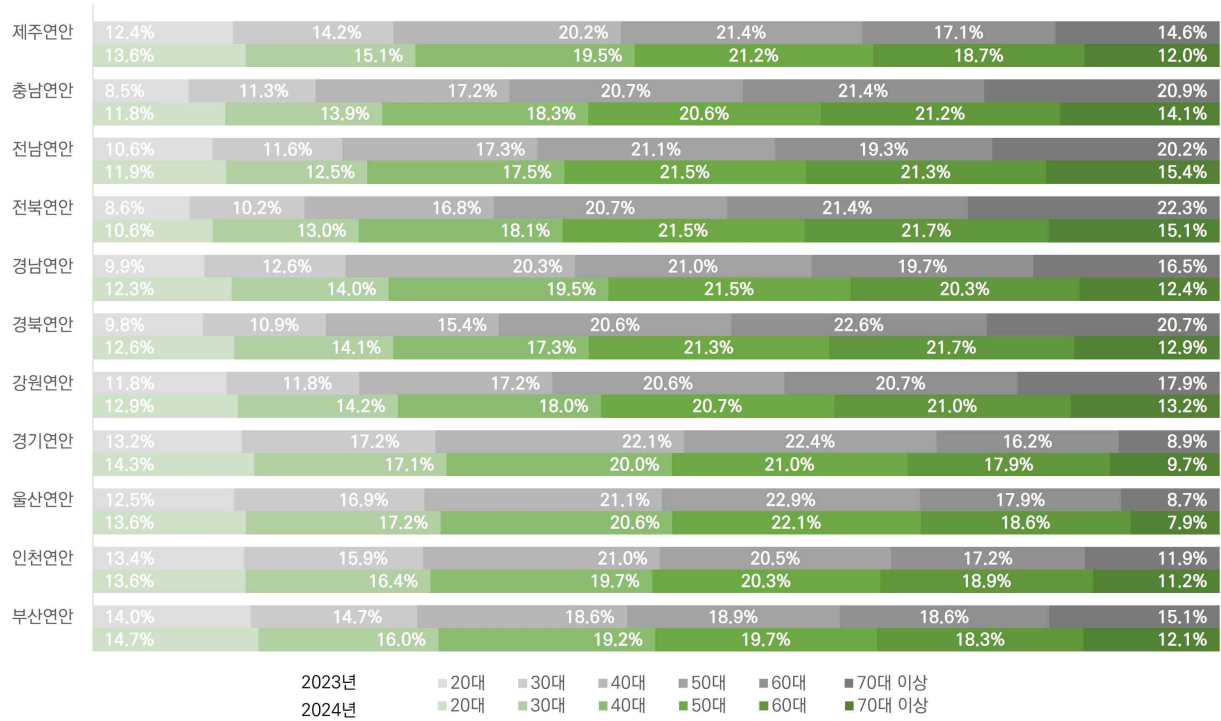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작작성

## ■ 2030 방문 비중은 증가, 70대 이상 노년층 방문은 감소 추세

- 2023년과 비교해 2024년 대부분의 연안지역에서 20대~30대 젊은층의 방문 비중이 증가했고, 그중 충남연안(20대 3.3%▲, 30대 2.7%▲)과 경북연안(20대 2.8%▲, 30대 3.2%▲)의 20대~30대 해양관광객 방문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
- 지난해에 비해 2024년에는 경기연안 외 전체 연안지역에서 70대 이상의 노년층 해양관광객 유입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2024년 해양관광객의 연안지역 방문은 주로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연안광역시(부산, 인천, 울산)와 수도권(경기), 경남, 전남, 제주 등 대다수의 연안 지역에서는 50대의 방문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반면 강원, 경북, 전북, 충남 등의 연안지역에서는 6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2024년 기준, 부산연안에서는 20대의 방문 비중이 가장 높았고(14.7%), 전남(15.4%)·전북연안(15.1%)에서는 70대 이상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6〉 2023년 vs. 2024년 연안지역 X 연령별 유입인구 비중 비교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작작성

## 정책적 시사점

### ■ 외부 변수에 강한 해양관광 수요 구조 설계 필요

- 2024년 해양관광 소비는 전국 11개 연안지역 모두에서 감소하며,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간 이어져 온 회복 흐름이 종료되었고, 이는 외부 충격에 취약한 해양관광 수요 구조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임
- 해외여행 수요의 급격한 반등, 전반적인 물가 상승, 일부 연안지역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외생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제주·인천 등 외지인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소비 감소 폭이 컸음
- 외지인 중심 수요에 기반한 현행 해양관광 구조는 예기치 못한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향후 해양관광정책은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과 구조적 대응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함
- 반면 경남, 전남 등 내지인 기반 소비가 강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비 감소 폭이 작았으며, 이는 정주형·생활형 해양관광활동이 지역경제 복원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이에 따라 향후 해양관광정책은 단기 외지인 중심의 일시적 수요에서 벗어나, 내지인을 포함한 지역 생활권 내 수요를 유·확대하기 위한 구조 개편이 필요하며, 특히 이러한 방향은 관광과 도시의 기능을 통합하는 해양수산부의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정책과도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음
- 이를 위해 실시간 수요 예측이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체계와 지역주민 참여형 콘텐츠 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 전략이 요구됨

### ■ 업종별 소비 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 재설계 필요

- 2024년 해양관광시장은 모든 업종에서 소비가 감소한 가운데, 특히 숙박(-8.5%)과 숙박 외 여가오락(-9.6%) 업종의 하락 폭이 두드러지며 체류형 관광이 약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 이는 고비용 부담, 콘텐츠 부족, 숙박시설 경쟁력 저하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되며, 단기 방문 중심의 소비 확산으로 구조적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함
- 향후 정책 설계에서는 업종별 소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숙박 연계형 콘텐츠 개발, 관광·소비·산업 간 연계가 가능한 관광 클러스터 구축, 지역별 체류시간 확대 전략이 필요함



## ■ 지역별·연령별 정밀 타겟 전략 수립 필요

- 2024년 해양관광 소비 분석 결과, 연령별·지역별로 소비 행태가 뚜렷하게 분화되고 있어 전국 단일 전략만으로는 정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전환되고 있음
-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층의 소비 비중은 대부분의 연안지역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70대 이상 고령층이 새로운 소비 주체로 부상하는 흐름까지 확인됨
- 반면, 2030세대는 방문률은 증가하였으나 소비 기여도는 줄어들었고, 40대는 방문과 소비 모두 감소하며 기존의 핵심 소비층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이에 따라 연령별 수요 특성에 기반한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며, 고령층을 위한 장기체류형, 건강·웰니스 중심 콘텐츠는 물론, 젊은 세대를 위한 체험형·레저 중심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요구됨
- 또한 소비 행태가 유사한 지역군을 설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을 설계하고,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소비패턴 중심의 공간 단위 타겟팅으로 정책 집행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함

## ■ 계절 편중 완화에 따른 사계절 해양관광 체계 전환 필요

- 해양관광 소비는 기존과 달리 여름·가을 성수기에도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하였으며, 봄·겨울철 소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계절 간 소비 편차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음
- 이는 성수기 집중 구조가 외부 변수에 과도하게 민감한 한계 구조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계절형 해양관광 체계로의 전환 가능성을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 봄철 지역축제, 겨울철 온천·해맞이 등 계절 특화 콘텐츠는 비성수기 소비 유지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을 활용한 전략적 확산이 향후 관광 수요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비수기 수요 확대를 위해 콘텐츠 기획 역량을 고도화하고, 계절별로 특화된 관광 패키지 운영과 홍보채널 다양화, 지역 간 연계 마케팅 등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함